

삼국시대 영천지역 고분의 편년과 고배의 특징

남 익 희*

- I. 머리말
- II. 영천지역 고분의 편년
- III. 이단투창고배의 분류와 특징
- IV.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토기를 기준으로 4~6세기 영천지역 고분의 편년과 축조 양상 등을 알아보았고, 5세기 중엽, 말엽의 이단투창고배를 대상으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여 기본적인 분류와 성격 등을 파악해보았다.

먼저 영천지역 내에는 4세기 중엽부터 목곽묘를 중심으로 한 고분의 축조가 확인되고, 5세기 후엽이 되면 석곽묘와 적석목곽묘를 중심으로 한 분묘의 조영이 확인되었다. 이후 5세기 말엽이 되면 횡구식 석실묘가 등장하며, 6세기 초·전엽까지 석곽묘를 중심으로 횡구식 석실묘가 조영 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영천지역과 경주지역에서 출토된 5세기 중엽의 이단투창고배를 대상으로 주성분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대각의 중간 부분 너비를

* (재)세종문화유산재단 연구부장 / namsunsu@naver.com

기준으로 크게 영천지역과 경주지역 출토품이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당시 영천지역 내에서 고분 부장용 토기의 제작, 생산지가 동일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하지만 5세기 말엽의 이단투창고배를 분석한 결과 5세기 중엽과 마찬가지로 대각 및 위쪽 투창 높이를 기준으로 영천과 경주지역 출토품이 구분되지만, 완산동고분군 출토 이단투창고배의 경우 경주지역 출토품과 유사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당시 완산동고분군에는 적석목곽묘의 등장과 함께 경주지역에서 제작, 생산된 고배가 유입되었거나, 영천지역 공인들이 동시기 경주지역 이단투창고배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고배를 제작할 수 있는 생산체계와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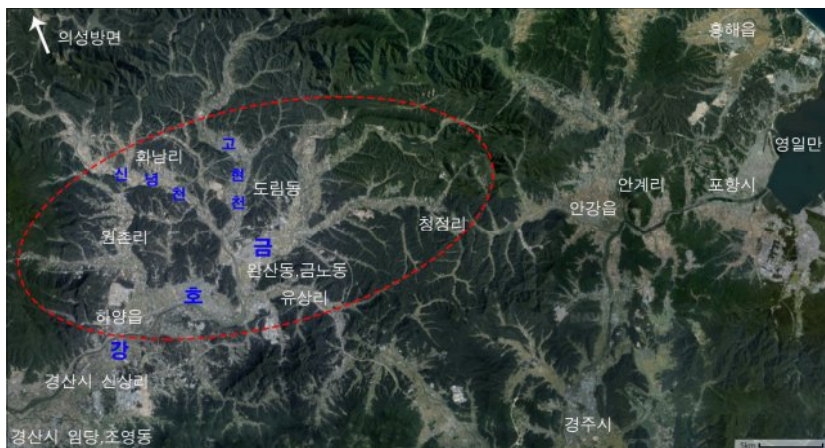
◆ 주제어

삼국시대, 영천지역 고분, 토기, 편년, 주성분분석

I. 머리말

영천지역은 신라의 수도인 경주지역에서 북서쪽으로 약 30km 떨어져 있고, 신라가 경주지역을 벗어나 북쪽으로 그 세력을 넓혀갈 때 필수적으로 거쳐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까지 봉분 직경 20~30m이르는 대형 고분이 확인된 바는 없지만, 지역 내에는 다수의 삼국시대 고분군이 조사되었고, 목곽묘와 석곽묘는 물론 경주지역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적석목곽묘도 다수 확인되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영천 청정리유적의 조사 이후 한동안 지역 내에서 삼국시대 분묘유적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2010년대에 들어서 완산동고분군, 화남리고분군, 원촌리고분군, 도림동고분군, 유상리유적 등이 발굴조사가 되었고, 많은 수의 고분과 유물이 알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삼국시대 영천지역의 고분과 유물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으며, 지역 고분에 대한 기본적인 편년과 출토 유물에 대한 성격도 분명하게 제시된 것이 없다. 이에 본고는 최근의 발굴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4~6세기 영천지역 고분의 편년을 실시하고, 출토유물 중 이단투창고배를 대상으로 주변지역 출토품과의 비교·검토를 통해 기본적인 성격과 특징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 삼국시대 영천지역(○) 주요 고분군 위치

II. 영천지역 고분의 편년

영천지역은 동쪽으로는 경주와 포항, 서쪽으로는 대구와 경산, 남쪽으로는 청도, 북쪽으로는 군위, 청송지역 등과 맞닿아 있다. 영천지역은 동서남북이 모두 해발 600~1,200m 내외의 산지로 둘러싸여 분지 지형에 속하고, 자호천, 고현천, 임고천 등의 하천이 영천시내에서 합류하여 본격적인 금호강을 이룬다. 이렇듯 영천지역은 다수의 소하천이 흘러 금호강으로 이어지며, 외곽으로는 높은 산지가 둘러싸고 있어 사람이 거주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모두에 언급하였듯이 경주지역에서 영남 내륙 특히 오늘날의 경산·대구(이후의 성주, 구미지역 등), 경북지방(의성, 안동, 상주 방향 등)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영천지역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이를 반영하듯 그림 1과 같이 영천지역 내의 각 소하천과 중심지, 주요 길목에는 다수의 삼국시대 고분군이 조영되어 있는데, 영천 중심지역에는 완산동, 금노동고분군, 북서쪽의 신녕천에는 화남리고분군, 북쪽 고

현천에는 도림동고분군, 동쪽의 안강읍과 영일만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청정리유적, 서쪽으로는 원촌리고분군 등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 고분군에서 발굴조사된 유물 중 토기류를 중심으로 4~6세기 영천지역 고분의 편년을 실시해보고자 하는데, 본고의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라 고분의 연대관은 황남대총 남분을 5세기 중엽에 위치시키며, 황남대총 남분의 피장자는 458년에 沒한 눌지왕으로 판단한다.

<표 1> 경주지역 고분 편년안

	최병현 (1992, 2012, 2013)	이성주 (1993)	김용성 (1996)	이희준 (1998, 2007)	박천수 (2010)	남익희 (2018)
4C	3C 말~ 4C 가-31호 초	1 /4	1 /4	1 /4	초	월성로 가-30호, 죽동리 2호
	4C 전엽	2 /4	2 /4	2 /4	전	죽동리 2호
	4C 중엽	3 /4	3 /4	3 /4	중	월성로 가-5호, 8호
	4C 후엽	4 /4	4 /4	4 /4	후	월성로 가-6호
	4C 말 (?)	4 /4	4 /4	4 /4	말	월성로 가-13호
	4C 말 (?)	4 /4	4 /4	4 /4	말	월성로 가-1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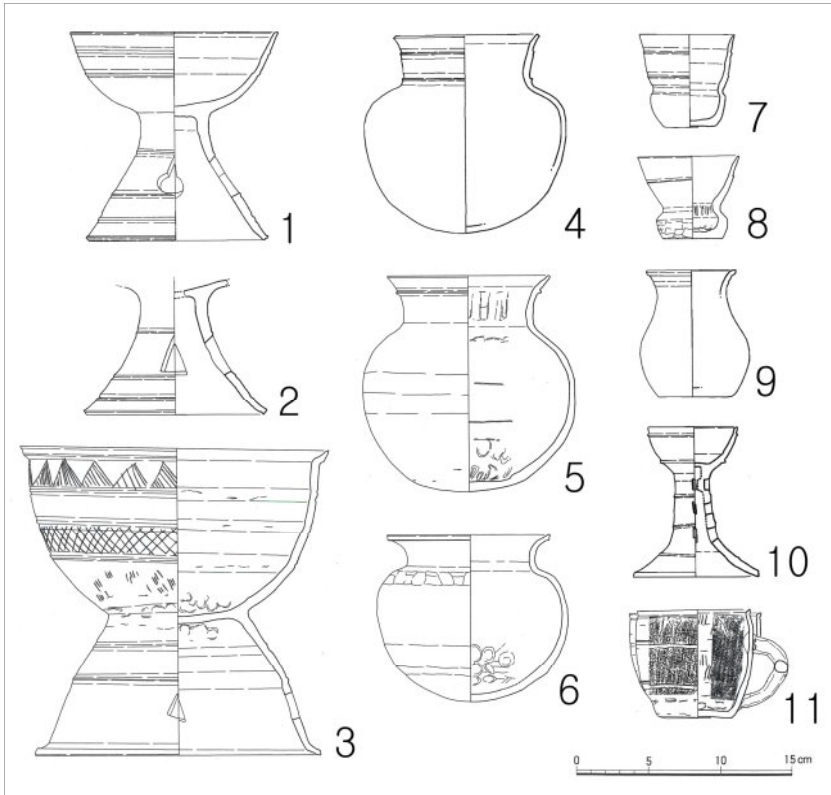
5C	4C 말~ 5C 초	황남대총 북분, 미추왕릉 5-8, 15	1 /4	월성로 가-13, 14호	1 /4	안계리 3호분	1 /4	황남대총 남분	초	월성로 나-13호	초	월성로 나-13호, 계림로 37호
	5C 이후 의 전반 기	미추왕릉 C-3, 서봉총	2 /4	미추 왕릉 5-1호	2 /4		2 /4	월성로 나-12호, 가-11-1호	전	황남동 110호	전	황남동 110호, 계림로 33호
			3 /4	월성로 나-9호, 황남동 110호	3 /4	황남동 110호, 황남대총 남분,북분	3 /4	월성로 가-4호, 다-2호	중	황남대총 남분	중	황남대총 남분
			4 /4	월성로 나12, 14호	4 /4	천마총	4 /4	월성로 다-5호, 가-15호	후	황남대총 북분	후	황남대총 북분
	5C 후반	미추왕릉 C-11, 금관총, 천마총, 석리총							말	금관총	말	월성로 가-13-1호
6C	5C 말~ 6C 초	호우총, 보문리 부부총	1 /4		1 /4	금령총, 호우총	1 /4	호우총	초	천마총	초	천마총, 호우총
			2 /4	보문리 부부총								

1. 4세기 중엽

영천지역에서 확인된 4세기 중엽에 해당하는 고분으로는 청정리 목곽 29호가 있다. 청정리목곽 29호 내에서는 장경호, 단경호, 광구소호, 컵형 토기, 발형기대 등의 토기가 출토되었는데, 기종 구성과 장경호, 단경호, 발형기대의 전체적인 형태, 기대 대각에 뚫려있는 삼각형의 투창 등에서 경주 월성로 가-5호분, 가-8호분과 평행한 시기로 판단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아직 토기에서 신라양식이 성립되지 않은 단계이며, 고배의 경우 대각에는 화염형 투창, 삼각형 투창 등의 함안양식 토기의 특징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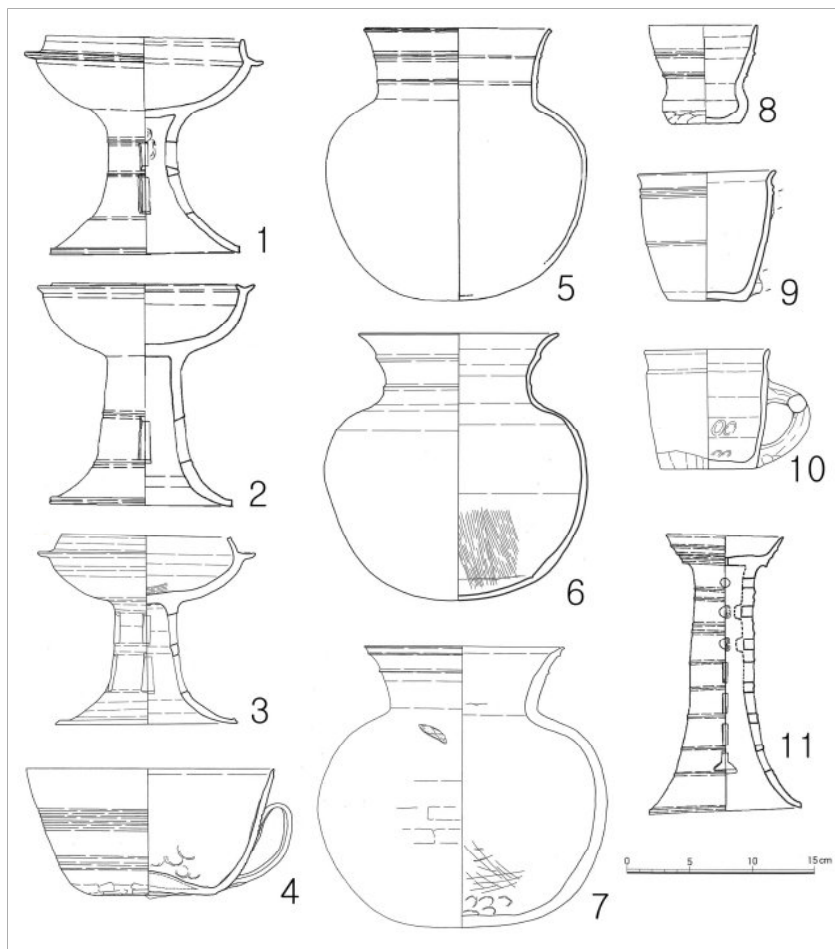
일부 보이기도 한다. 고배 구연부에는 뚜껑받이턱이 형성되지 않고, 고배와 세트관계를 이루는 개도 본격적으로 제작되지 않는 시기이다.



<그림 2> 4세기 중엽 토기 각종(1·2·4·7·9: 경주 월성로 가-5호분, 3·5·6·8·11: 영천 청정리 목곽 29호, 10: 경주 월성로 가-8호분)

2. 4세기 후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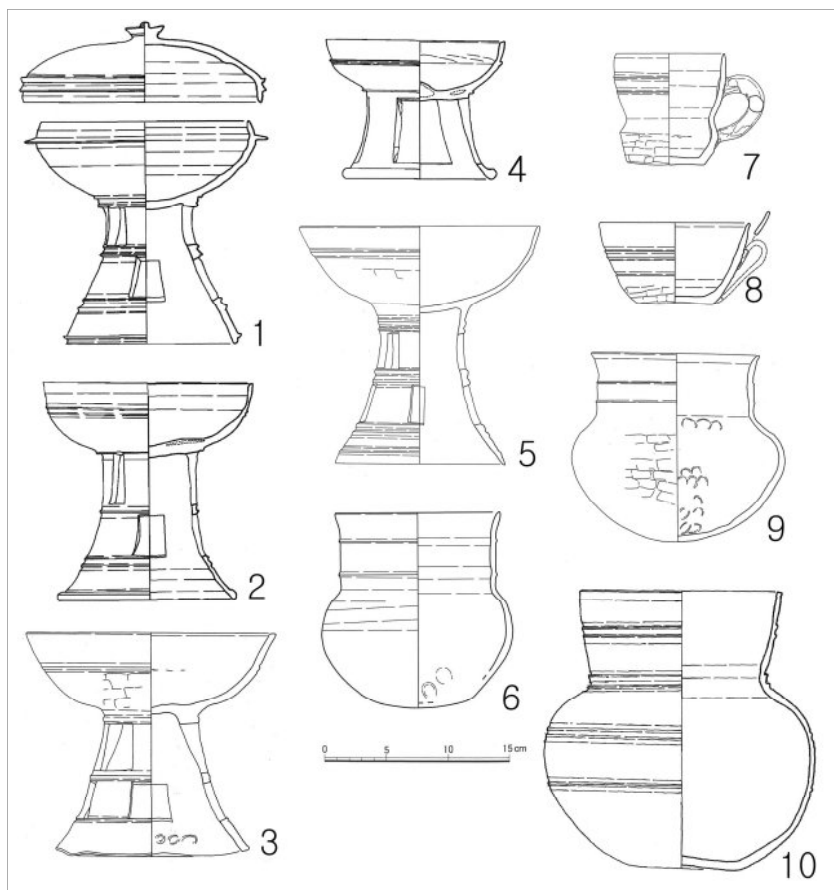
영천지역에서 확인된 4세기 후엽에 해당하는 고분으로는 청정리 목곽 27호, 화남리 목곽 19호, 유상리 목곽 1호가 있고, 경주 월성로 가-6호분, 경산 임당 G-5, 6호분 등과 같은 시기에 해당한다.



<그림 3> 4세기 후엽 토기 각종(1·2·5·8·11: 경주 월성로 가-6호분, 3·10: 영천 화남리 19호 목곽, 4·7: 영천 청정리 목곽 27호, 6·9: 영천 유상리 목곽묘 1호)

청정리 목곽 27호, 화남리 목곽 19호, 유상리 목곽 1호 내에서는 고배, 장경호, 컵형토기 등이 출토되었는데, 고배의 경우 일자형으로 벌어지는 대각과 구연부에는 뚜껑받이턱이 형성된다. 전시기와 마찬가지로

대각의 교호 투창으로 대표되는 신라양식이 성립되지 않은 시기이며, 고배 대각 상하에는 일렬의 세장방형의 투창이나 삼각형의 투창 등이 확인된다. 장경호의 경우 전시기 보다 경부의 길이가 조금 더 길어진다.



<그림 4> 4세기 말엽 토기 각종(1·2·4·10: 경주 월성로 가-13호분, 3·9: 영천 청정리 목곽 24호, 5·7·8: 영천 청정리 목곽 10호, 6: 영천 유상리 목곽묘 2호)

3. 4세기 말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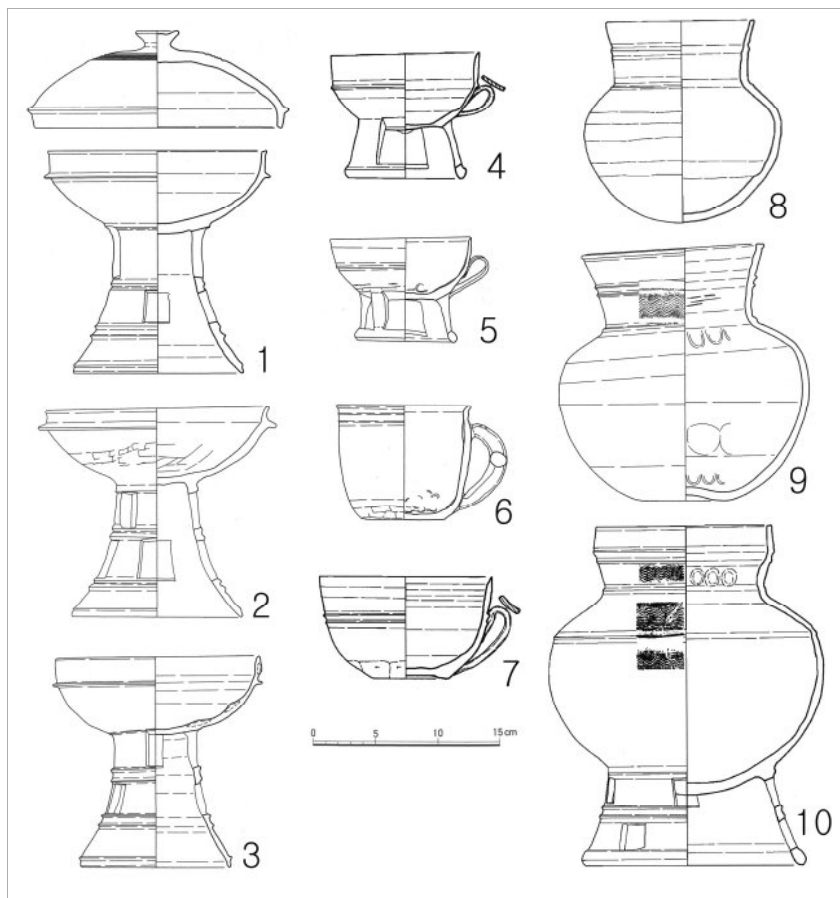
영천지역에서 확인된 4세기 말엽에 해당하는 고분으로는 청정리 목곽 10호, 24호, 유상리 목곽묘 2호가 있고, 경주 월성로 가-13호분과 같은 시기에 해당한다.

청정리 목곽 10호, 24호, 유상리 목곽 2호 내에서는 고배, 장경호, 단경호, 컵형토기 등이 출토되고, 경주지역 고분에서는 교호의 투창을 가진 고배, 건부가 뚜렷하게 형성된 장경호, 일단투창고배 등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며 ‘신라양식’의 성립이 확인된다. 청정리 목곽 10호, 24호에서도 나팔형으로 벌어지는 대각에 교호의 투창을 가진 새로운 양식의 고배가 확인되지만, 여전히 컵형토기와 파수광구소호 등이 함께 부장되고, 경주지역과 달리 고배와 세트를 이루는 개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고분에 부장되는 기종조합이나 토기 제작기술 등에서 4세기대 재지의 전통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5세기 초엽

영천지역의 5세기 초엽에 해당하는 고분으로는 청정리 목곽 36호, 38호, 화남리 목곽 16호가 있고, 경주 계림로 37호와 같은 시기에 해당한다.

청정리 목곽 36호, 38호, 화남리 목곽 16호 내에서는 고배, 파수부 대부완, 장경호, 컵형토기 등이 출토되었는데, 고배의 경우 뚜껑받이턱이 뚜렷하게 형성되고, 대각은 전시기 보다 약간 직선화된 느낌이 들며, 교호 투창이 완전히 자리를 잡는다. 새롭게 파수부 대부완 등이 등장하지만, 여전히 컵형토기가 주요 기종으로 부장되고, 경주지역과 달리 대부장경호도 확인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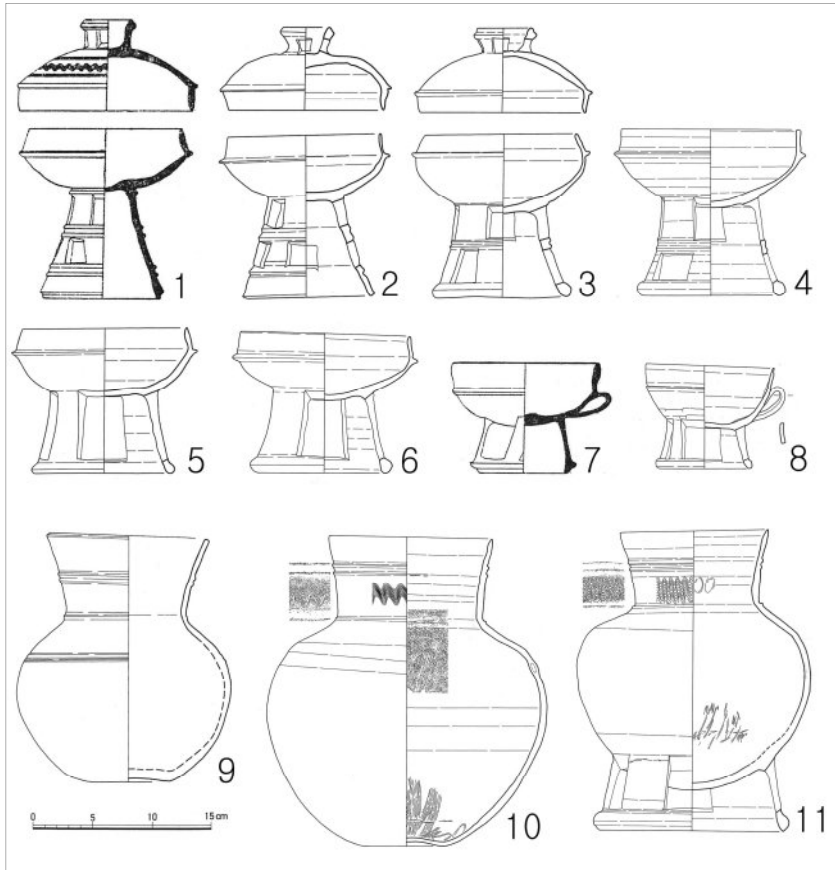


<그림 5> 5세기 초엽 토기 각종(1: 경주 계림로 37호, 4·7·8·10: 경주 월성로 나 13호분, 2·6: 영천 청정리 목곽 36호, 3·9: 영천 화남리 16호 목곽, 5: 영천 청정리 목곽 38호)

5. 5세기 전엽

영천지역의 5세기 전엽에 해당하는 고분으로는 청정리 목곽 2호, 화남리 목곽 2호, 3호, 9호, 28호, 석곽 25-1호 등이 있고, 경주 황남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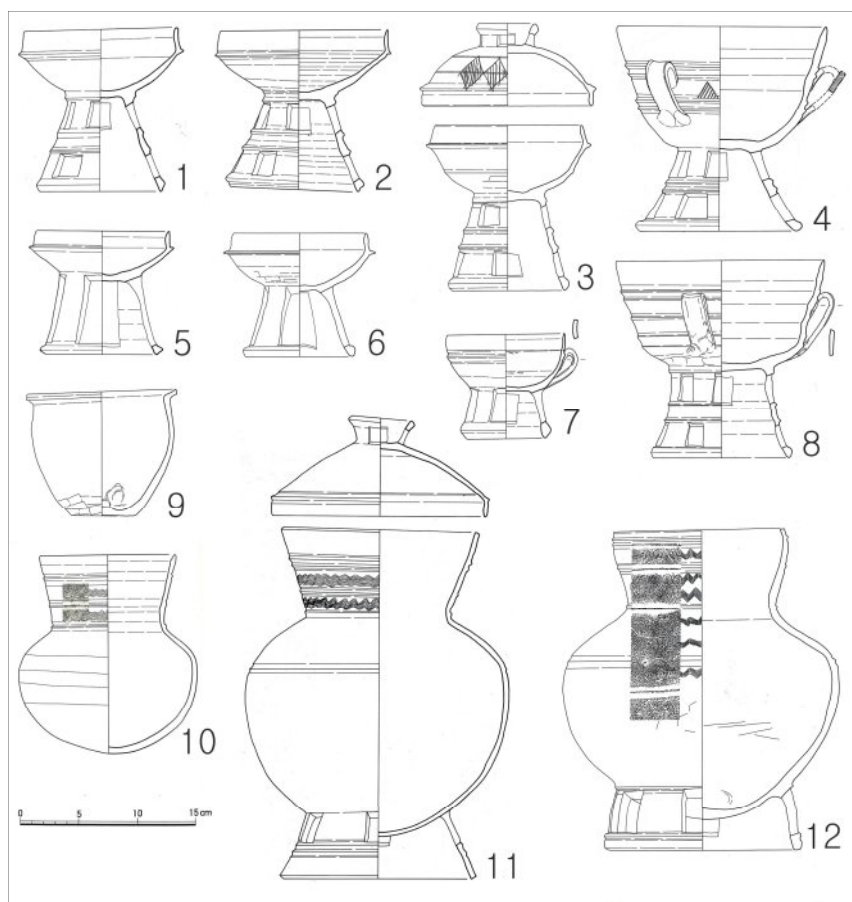
110호분, 계림로 33호와 같은 시기에 해당한다.



<그림 6> 5세기 전엽 토기 각종(1·7: 경주 황남동 110호분, 2·3·5: 경주 계림로 33호, 4: 영천 화남리 9호 목곽, 6: 영천 화남리 28호 목곽, 8: 영천 청정리 목곽 2호, 9: 경주 동산리 54호, 10: 영천 화남리 2호 목곽, 11: 영천 화남리 3호 목곽)

청정리 목곽 2호, 화남리 목곽 2호, 3호, 9호, 28호, 석곽 25-1호 내에서는 고배, 파수부 대부완, 장경호, 대부장경호 등이 출토되었는데, 고배의 경우 이단투창고배와 함께 새롭게 일단투창고배가 확인되고, 이단

투창고배의 대각은 길이가 짧고 상하 구경이 넓은 느낌을 준다. 화남리 목곽 3호 등에서는 동체 저부에 긴 대각을 가진 대부장경호가 확인되고, 경부에는 파상문이 시문된다.



<그림 7> 5세기 중엽 토기 각종(1·4·5·11: 경주 황남대총 남분, 2: 영천 화남리 25-2호 석곽, 3·8·9: 영천 청정리 목곽 16호, 6·12: 영천 청정리 목곽 4호, 7: 영천 화남리 1-1호 목곽, 10: 영천 화남리 25-3호 석곽)

6. 5세기 중엽

5세기 중엽에 해당하는 영천지역 고분으로는 청정리 목곽 4호, 16호, 화남리 목곽 1-1호, 석곽 25-2호 등이 있고, 동시기 경주지역 고분으로는 황남대총 남분, 쪽샘 A1호 목곽 등이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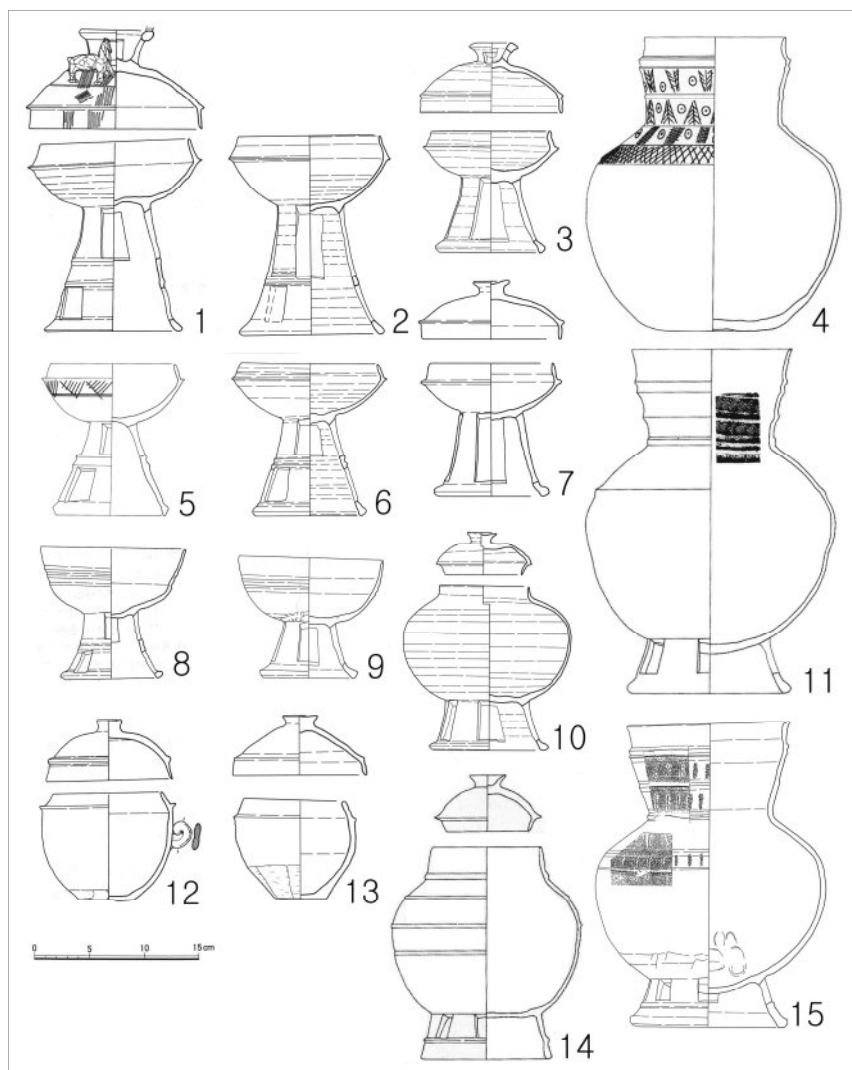
청정리 목곽 4호, 16호, 화남리 목곽 1-1호, 석곽 25-2호 내에서는 고배, 장경호, 대부장경호 등과 함께 기존의 파수부 대부완 보다 대형의 대부완(이단투창고배의 대각과 동일한 대각을 가진, 그림 7의 8)이 등장하고, 적갈색 연질의 소호(그림 7의 9)도 부장된다. 대형의 대부완이 추가됨으로써 소위 ‘유개고배(일단, 이단)+ 장경호(원저, 대부)+ 단경호+ 소호+ 대부완’이라는 ‘경주식 기종조합’(남익희 2018)이 완성되었고, 영천지역 고분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단투창고배의 경우 경주지역과 마찬가지로 대각 중위에 뚜렷한 2조의 돌대를 가진 전형적인 ‘경주(신라)양식’이 등장하고, 장경호 역시 건부가 뚜렷하게 형성되고, 경부는 3분되며 각 단에 파상문이 시문되는 등 경주지역의 그것과 유사도가 높아진다.

7. 5세기 후엽

5세기 후엽에 해당하는 영천지역 고분으로는 청정리 목곽 37호, 화남리 목곽 4호, 석곽 13호, 완산동 21호 석곽, 원촌리 3호 석곽, 도림동 2호, 3호 적석목곽 등이 있고, 동시기 경주지역 고분으로는 황남대총 북분, 월성로 가-11-1호분 등이 대표적이다.

5세기 후엽에 해당하는 고분 내에는 고배, 장경호, 대부장경호, 대부완, 소호와 함께 새로이 단경호에 대각이 부착된 대부호가 부장된다. 이단투창고배의 경우 대각이 전시기 보다 길어지고, 기벽이 전반적으로 얇아지며, 고배를 비롯한 장경호에는 파상문과 함께 점열문, 삼각집선문, 종집선문 등의 다양한 문양이 시문된다.



<그림 8> 5세기 후엽 토기 각종(1·8·12: 경주 월성로 가-11-1호분, 2: 영천 화남리 13호 석곽, 3: 영천 원촌리 3호 석곽, 4·5·11·14: 경주 황남대총 북분, 6: 영천 화남리 6호 목곽, 7: 영천 도림동 적석목곽 3호, 9·15: 영천 청정리 목곽 37호, 10: 영천 화남리 43-1호 석곽, 13: 영천 완산동 산28-5유적 21호 석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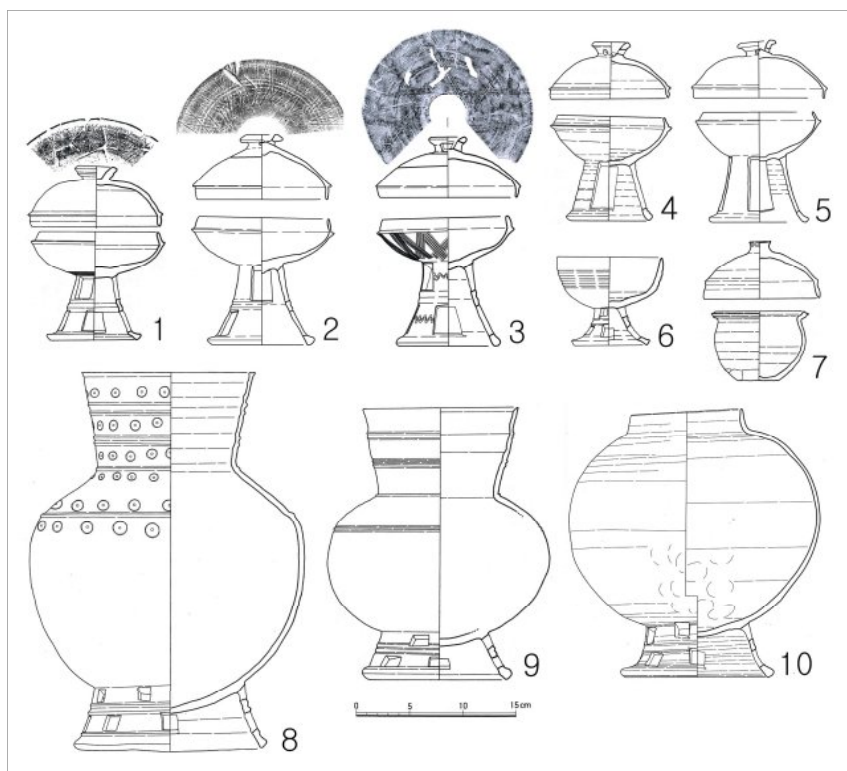
이 시기 영천지역 고분에서 출토되는 토기 대부분은 경주지역과 외형적인 유사도가 높고, 부장 토기의 기종구성 역시 경주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5세기 후엽부터 적석목곽묘가 영천지역 내 고분군에서 확인되기 시작하는데, 영천지역 외곽의 기존의 청정리, 화남리고분군이 아닌 분지 내에 새롭게 조영되기 시작하는 원촌리, 도림동고분군에서 확인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8. 5세기 말엽

5세기 말엽에 해당하는 영천지역 고분으로는 청정리 석곽 4호, 화남리 석곽 1호, 10호, 완산동 2호, 4호 적석목곽, 원촌리 15호, 30호 석곽, 도림동 11호 적석목곽, 12호 석곽 등이 있고, 동시기 경주지역 고분으로는 은령총, 계림로 27호, 월성로 가-13-1호분 등이 대표적이다.

5세기 말엽에 해당하는 고분 내에는 전시기와 동일한 고배, 장경호, 대부장경호, 대부완, 소호와 함께 대부직구호가 등장한다. 이 시기 이단 투창고배나 개의 외면에는 사격자문, ‘V’자문 등이 주로 시문되고, 대부장경호의 경부는 전시기에 비해 더욱 길어지며, 2단의 교호 투창을 가진 대각이 부착된다.

영천 분지의 중심에 위치한 완산동고분군 내에서도 이 시기부터 적석목곽묘가 확인되는데, 영천지역 외곽의 청정리, 화남리고분군에서는 목곽묘의 조영이 끝나고, 적석목곽묘는 확인되지 않으며, 수혈식석곽묘 중심으로 고분이 축조된다.



<그림 9> 5세기 말엽 토기 각종(1·6·9: 경주 월성로 가-13-1호분, 2: 영천 도림동 석곽 2호, 3: 영천 완산동 산28-5유적 4호 적석목곽, 4·7·8: 경주 월성로 다-2호분, 5: 영천 도림동 적석목곽 16호, 10: 영천 원촌리 31호 석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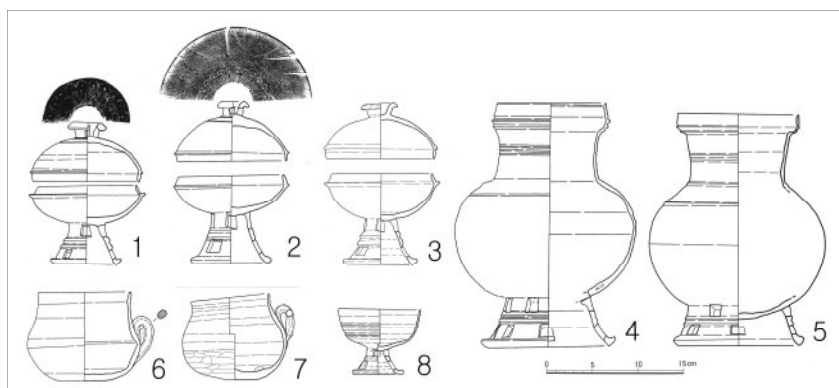
9. 6세기 초·전엽

6세기 초·전엽에 해당하는 영천지역 고분으로는 청정리Ⅱ 석곽 11호, 21-1호, 화남리 석곽 15호, 10호, 완산동 1호, 3호 적석목곽, 원촌리 40호 석곽 등이 있고, 동시기 경주지역 고분으로는 천마총, 월성로 가-1호분 등이 대표적이다.

6세기 초·전엽에 해당하는 고분 내에는 전시기와 유사한 기종 구성의

로 고배, 대부장경호, 대부완 등이 부장되는데, 이 시기 이단투창고배의 대각은 전시기에 비해 짧아지고, 대부장경호에는 'ㄴ'자형의 부가구연이 등장한다. 대부장경호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종에서 전반적으로 소형화가 확인되고, 기벽 역시 더욱 얇아진다.

영천 분지의 중심에 위치한 완산동고분군에서는 적석목곽묘의 축조가 이어지고, 영천지역 내 대부분의 고분군에서는 석곽묘와 석실묘 중심의 분묘가 조영된다.



<그림 10> 6세기 초·전엽 토기 각종(1: 경주 월성로 가-1호분, 2·4: 경주 쪽샘 A3호 목곽, 3: 영천 청정리Ⅱ 11호 석곽, 5: 영천 완산동 3호 적석목곽, 6: 경주 쪽샘 A4호 석곽, 7·8: 영천 화남리 15호 석곽)

이상 4세기 중엽부터 6세기 초·전엽까지 토기를 중심으로 영천지역 고분의 편년을 실시해보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고분의 축조와 토기 부장 양상 등을 대략적으로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4~6세기 영천지역 고분의 축조의 흐름은 크게 ‘목곽묘→석곽묘·적석목곽묘→석실묘’로 영남지방에서 확인되는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세부적으로는 영천지역의 외곽에 해당하는 청정리와 유상리유적, 화남리고분군에서 4세기 중엽를 전후한 시기의 목곽묘가 처음으로 확인되고, 이후 5세기 중엽까지 양 고분군에서 목곽묘를 중심으로 한 분묘의

축조가 지속된다. 특히 청정리와 화남리는 각각 오늘날의 영천지역 중심에서 동해안¹⁾과 군위, 의성지역으로 연결되는 외곽의 주요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데,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목곽묘의 조영이 시작되는 것이며, 의외로 영천지역의 중심지에 해당하는 영천 분지 일대에는 별다른 고분군의 조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5세기 후엽이 되면 영천 분지 내 금호강과 고현천 등을 중심으로 새롭게 완산동, 원촌리, 도림동고분군 등이 조영되기 시작하고, 청정리, 화남리고분군과 달리 석곽묘와 적석목곽묘를 중심으로 한 분묘의 조영이 확인된다. 특히 그 동안 보이지 않던 적석목곽묘의 조영이 영천지역 내에서 시작되는데, 자연히 경주지역과의 연관성을 떠올려 볼 수 있으며, 피장자의 출자와 관련하여 경주지역 지배층의 이동 등도 상정해 볼 수 있다.

5세기 말엽이 되면 도림동고분군 등에서 황구식 석실묘가 확인되는데, 6세기 초전엽까지 석곽묘를 중심으로 황구식 석실묘도 조영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영천지역 내 고분의 토기부장 양상은 고배와 장경호, 단경호, 대부완, 적갈색 연질 소호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경주식 기종조합’이 5세기 중엽부터 확인되는데, 실제 4세기 중엽부터 영천지역은 경주지역과 고분 내 부장 기종의 구성, 토기의 형태 등에서 큰 차이가 확인되진 않는다.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지리적으로 가까운 양 지역 사이에 토기 제작, 기술과 관련된 인적, 물적 교류 등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원삼국시대부터 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큰 반목 없이 양 지역 정치체가 존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1) 영천 분지-안강읍-영일만 혹은 흥해읍을 잇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표 35> 영천지역 고분 판년(木목곽묘, 石석곽묘, 積木적석목곽묘, 圍石위석식목곽묘, 室석실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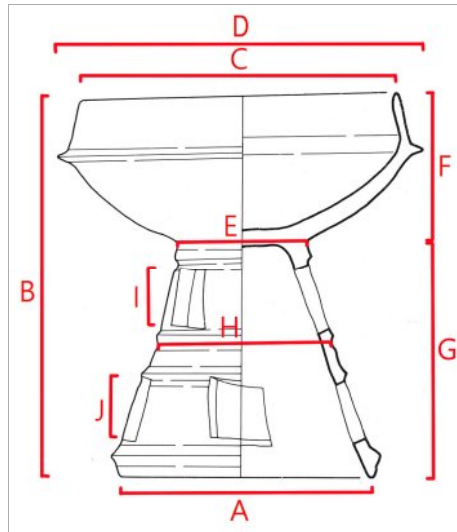
		영천지역						경주지역
		청정리 유적	화남리 고분군	유상리 유적	완산동 산28-5번지 유적	원촌리 고분군	도림동 고분군	
4C	중	木29						월성로 가-5호
	후	木27	木19	木1				월성로 가-6호
	말	木10, 木24		木2				월성로 가-13호
5C	초	木36, 木38	木16					월성로 나-13호
	전	木2, 木6	木2, 木9 25-1石					계림로 33호
	중	木4, 木16 6石	木1-1, 木11 25-2石					황남대총 남분
	후	木37	木4, 木6 13石, 19石		21石, 29石	1, 2圍石 3石, 17石	2, 3, 8積木	황남대총 북분
	말	4石, 10石(Ⅱ)	1石, 10石 47-2石		2, 4積木 3石, 11石	15石, 30石	11, 16積木 12石, 4室	금령총
6C	초 · 전	11石, 21-1石	15石		1, 3積木 3石, 10石	40石		천마총

Ⅲ. 이단투창고배의 분류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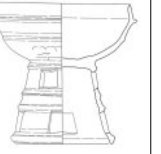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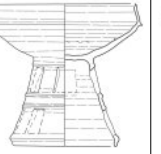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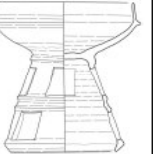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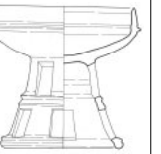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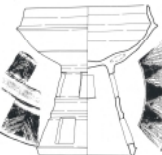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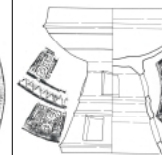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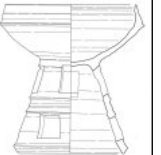




본장에서는 5세기 중엽과 말엽의 이단투창고배를 분석하여 기본적인 분류와 각 군집의 성격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5세기 중엽과 말엽의 토기를 각각 분석한 이유는 먼저 5세기 중엽은 이단투창고배를 중심으로 ‘신라양식 토기’가 정립된 시기이자 하나의 획기가 되는 시기이며, 5세기 말엽은 경주 이외의 지방에서 지역색이 서서히 사라지고 하나의 양식(중앙의 신라양식)으로 통일이 되는 시발점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에 양 시기를 분석, 비교한다면 영천지역과 경주지역 사이의 고배가 어느 정도 상이·상사성을 가지는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떠한 변화상을 가지는지 등에 대한 고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토기의 분석은 사회 과학용 통계 패키지(SPSS)을 이용한 주성분분석을 활용하며, 영천지역 출토품을 중심으로 신라 중앙에 해당하는 경주지역에서 출토된 이단투창고배를 포함한 총 20여점 내외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주성분분석의 기본이 되는 변량은 이단투창고배의 각 부분 길이 측정 값(cm)이 되는데, 그림 11과 같이 총 10곳을 측정하였고, A는 각저경, B는 기고, C는 구경, D는 뚜껑받이턱경(배신최대경), E는 각상위경, F는 배신고, G는 대각고, H는 각중위경, I는 상투창고, J는 하투창고이다.



〈그림 11〉 이단투창고배 계측지점

				
청정리 목곽4a	청정리 목곽4b	청정리 목곽16a	청정리 목곽16b	화남리 목곽1-1a
영천				
				
화남리 목곽1-1b	화남리 목곽11	화남리 석곽25-2a	화남리 석곽25-2b	화남리 석곽25-3a
영천				
				
화남리 석곽25-3b	남분 부곽142-5	남분 부곽144-1	남분 부곽147-1	남분 부곽148-6
영천	경주			
				
남분 부곽150-1	남분 부곽151-1	쪽샘 A1목곽a	쪽샘 A1목곽b	쪽샘 C1목곽a
경주				
				
쪽샘 C1목곽b	쪽샘 C9목곽a	쪽샘 C9목곽b	안계리 3호	
경주				

〈그림 12〉 분석대상 5세기 중엽 이단투창고배(*축척부동)

1. 5세기 중엽의 이단투창고배

영천지역의 청정리, 화남리유적 출토 이단투창고배 11점을 중심으로 경주 황남대총 남분, 쪽샘유적, 안계리고분군 출토품 등을 더해 그림 12와 같이 총 24점을 분석하였다.

주성분분석 결과 그림 13과 같이 주성분 2에 대한 누적 기여율 68.708%의 분석 값과 그림 14와 같은 성분행렬 값을 얻을 수 있었다.

설명된 총 분산									
구성요소	초기 고유값			추출 제공할 토당			회전 제공할 토당		
	총계	분산의 %	누적률(%)	총계	분산의 %	누적률(%)	총계	분산의 %	누적률(%)
1	5.163	51.628	51.628	5.163	51.628	51.628	3.819	38.192	38.192
2	1.708	17.079	68.708	1.708	17.079	68.708	3.052	30.515	68.708
3	1.384	13.836	82.544						
4	.635	6.351	88.895						
5	.398	3.977	92.872						
6	.312	3.120	95.992						
7	.261	2.606	98.598						
8	.101	1.011	99.609						
9	.033	.332	99.941						
10	.006	.059	100.000						

추출 방법: 프린시펄 구성요소 분석

<그림 13> 5세기 중엽 이단투창고배 총 분산

먼저 누적 기여율은 10개의 변량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주성분 1과 2의 두 가지 각도로만 고찰하더라도 분석 대상의 본질이 약 69%까지 설명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고, 분석의 신뢰 척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성분행렬 값은 주성분 1과 2에 10개의 변량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림 14를 통해 주성분 1에는 대각 가운데 부분 너비 관련된 요소(대각 중위경)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주성분 2에는 기고와 배신고 등 고배의 높이 관련된 요소가 많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주성분 1을 세로축(y축), 주성분 2를 가로축(x축)으로 설정하였을 때 그림 15의 산점도와 같이 도면의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는 대각 가운데 부분의 너비가 넓은 것에서 좁은

것으로 이단투창고배가 배열되어 있고, 도면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는 고배의 전체 높이 및 배신의 높이가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이단투창고배가 배열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 내용을 바탕으로 산점도를 살펴보면 크게 4개의 군집 양상이 확인되고, 그림 15, 16에서와 같이 A~D의 네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A그룹은 청정리 목곽 4호a·b, 화남리 목곽 1-1호a·b, 석곽 25-2호a, 경주 황남대총 남분 부곽142-5 총 6점이 분포하는데, 대각 가운데 부분의 너비가 크지만 고배 전체 높이 및 배신의 높이는 낮은 고배들에 해당하며, 6점 중 5점이 영천지역 출토품이다.

B그룹 내에는 총 8점이 분포하는데, 화남리 목곽 11호, 석곽 25-2호b, 25-3호a·b와 경주 황남대총 남분 부곽148-6, 쪽샘 A1호 목곽a·b, 안계리 3호에 해당한다. 총 8점 중 영천지역 출토품 4점, 경주지역 출토품 4점으로 대각 가운데 부분의 너비가 크고, 전체 높이 및 배신의 높이도 높은 고배들에 해당한다.

C그룹에는 경주 황남대총 남분 부곽147-4, 150-1, 151-1, 쪽샘 C9호 목곽b 총 4점이 분포하고, 모두 경주지역 출토품에 해당한다. 대각 가운데 부분의 너비가 작지만, 전체 높이 및 배신의 높이는 높은 고배들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D그룹에는 총 6점이 분포하는데, 대각 가운데 부분의 너비가 작고, 전체 높이 및 배신의 높이도 낮은 고배에 해당한다. 청정리 목곽 16호a·b, 경주 황남대총 남분 부곽144-1, 쪽샘 C1호 목곽a·b, C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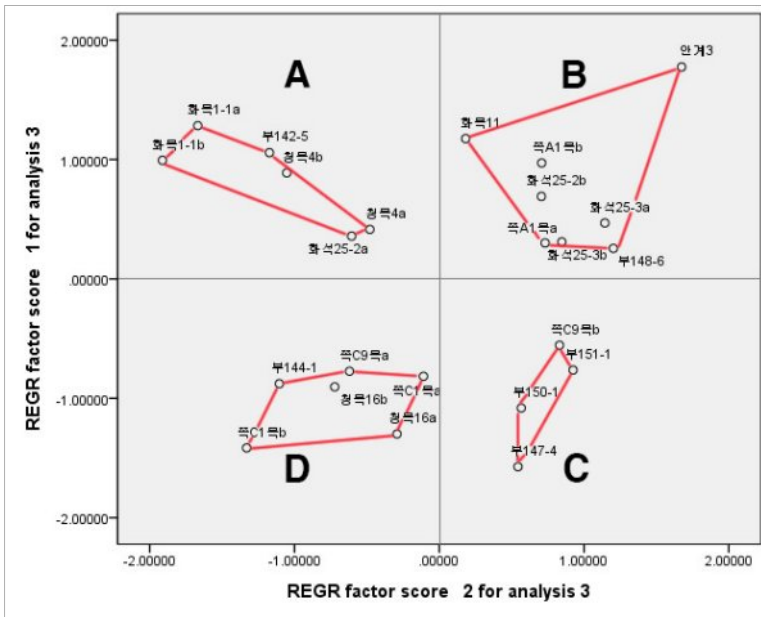
회전 성분 행렬 ^a		
	구성요소	
	1	2
각저경	.727	.318
기고	.238	.908
구경	.651	.455
두턱경	.618	.636
각상위경	.797	.201
배신고	-.307	.827
대각고	.466	.672
각중위경	.820	.084
상투창고	.694	-.095
하투창고	.570	.568

추출 방법: 프리시펫 구성요소
분석
회전 방법: 카이저-메이어-올리크 기준
사용한 베리맥스^a

<그림 14> 5세기 중엽 이단투창고배 성분 행렬

호 목곽a가 분포하고, 총 6점 중 4점이 경주지역, 2점이 영천지역 출토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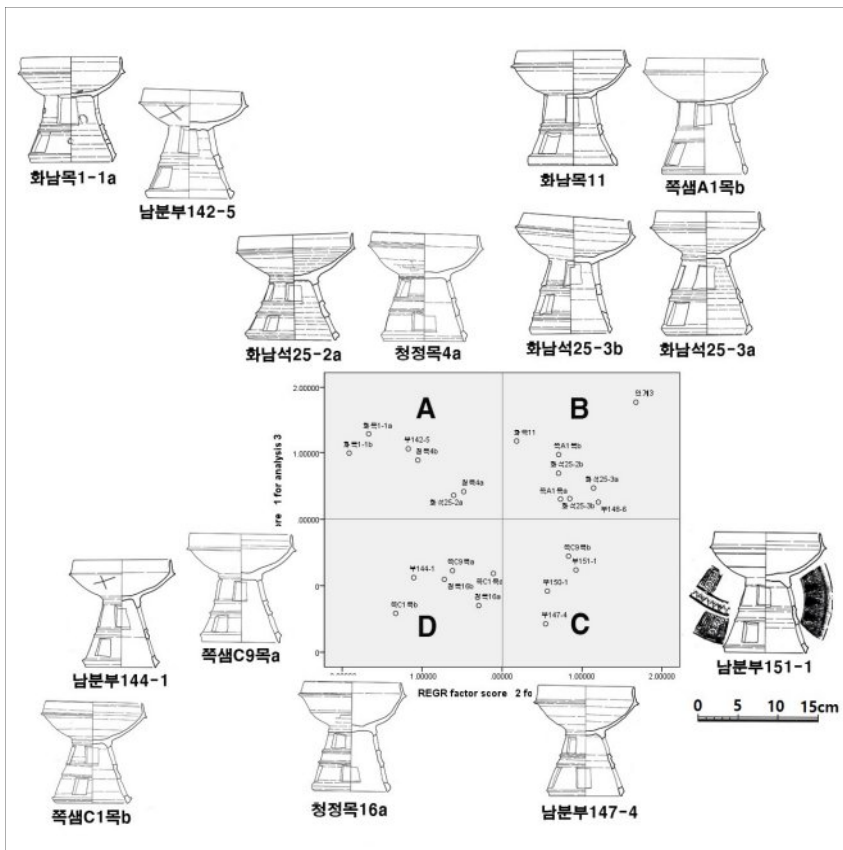
위와 같은 군집 양상을 종합하여 판단해보자면, 먼저 크게 도면 상하를 기준(주성분 1)으로 위쪽 A, B그룹에는 영천지역 출토품이 다수를 차지하고, 아래쪽 C, D그룹에는 경주지역 출토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대각의 중간 부분 너비를 기준으로 크게 영천지역과 경주지역 출토품이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상대적으로 영천지역 産 고배의 대각 너비가 넓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동일한 신라양식 이단투창고배라 하더라도 지역(생산지 혹은 중앙과 지방)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5> 5세기 중엽 이단투창고배 산점도

다음으로 영천지역 내 화남리고분군 출토품은 산점도 내 상위 그룹

(A, B)에만 분포하는 특징을 가지고, 영천지역에서 제작, 생산된 특징을 잘 나타내주며, 생산지는 역시 화남리 일대의 영천지역임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청정리유적 출토품과 화남리고분군 출토품이 서로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고 A그룹에 혼재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당시 영천지역 내에서 고분 부장용 토기의 제작, 생산지가 동일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만일 영천지역 내에서 토기의 제작, 생산지가 달랐더라도 유사한 토기 생산 체계를 공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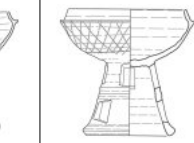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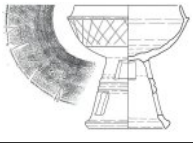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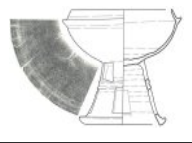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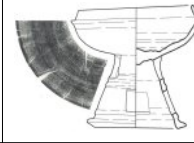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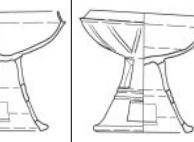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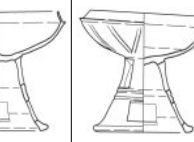


<그림 16> 5세기 중엽 이단투창고배 산점도 상 토기 분포

더불어 D그룹 내에서 다수의 경주지역 출토품과 함께 위치한 청정리 목곽 16호 출토품 2점은 경주지역에서 제작, 생산되어 영천지역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 영천지역에서 제작, 생산되었다면 경주지역 고배를 매우 잘 모방하여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2. 5세기 말엽 이단투창고배

영천지역의 청정리, 화남리, 완산동, 도림동, 원촌리고분군 출토 이단투창고배 20점을 중심으로 경주 월성로, 쪽샘유적, 안계리고분군 출토품 등을 더해 총 31점을 분석하였고, 지역과 무관하게 이 시기 이단투창고배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배신에 ‘사격자문 또는 V자 문양’이 시문된 이단투창고배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청정리II 석곽10a	청정리II 석곽10b	청정리II 석곽16a	청정리II 석곽16b
영천			
			
청정리II 석곽17	청정리III 석곽24a	청정리III 석곽24b	청정리III 석곽28a
영천			
			
청정리III 석곽28b	화남리 석곽47-2a	화남리 석곽47-2b	완산동 적목2a
영천			
			
완산동 적목2b			

				
완산동 적목4a	완산동 적목4b	완산동 석곽11	도림동 석곽12a	도림동 석곽12b
영천				
				
도림동 석실4	원촌리 석곽30	월성로 가-4a	월성로 가-4b	월성로 다-5
영천		경주		
				
쪽샘 B1	쪽샘 B3a	쪽샘 B3b	쪽샘 B6	
경주				
				
계림로 28	안계리 22호	안계리 43호a	안계리 43호b	
경주				

<그림 17> 분석대상 5세기 말엽 이단투창고배(*축척부동)

주성분분석 결과 그림 18과 같이 주성분 2에 대한 누적 기여율 72.856%의 분석 값과 그림 19와 같은 성분행렬 값을 얻을 수 있었다. 분석에 대한 누적 기여율은 5세기 중엽 이단투창고배의 경우 보다 약간 높으며, 분석 신뢰도가 약 73%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 영천지역 고분의 편년과 고배의 특징(남익희)

설명된 총 분산									
구성요소	초기 고유값			추출 제공한 토잉			회전 제공한 토잉		
	총계	분산의 %	누적률(%)	총계	분산의 %	누적률(%)	총계	분산의 %	누적률(%)
1	5.889	58.888	58.888	5.889	58.888	58.888	3.893	38.933	38.933
2	1.397	13.968	72.856	1.397	13.968	72.856	3.392	33.924	72.856
3	1.095	10.946	83.802						
4	.628	6.282	90.084						
5	.421	4.208	94.293						
6	.230	2.295	96.588						
7	.161	1.614	98.202						
8	.112	1.119	99.321						
9	.066	.659	99.980						
10	.002	.020	100.000						

추출 방법: 프린시펄 구성요소 분석

<그림 18> 5세기 말엽 이단투창고배 총 분산

그리고 성분행렬 값에 해당하는 그림 19를 통해 주성분 1에는 대각고와 상투창고 등 대각과 위쪽 투창의 높이와 관련된 요소가 많이 반영되어 있고, 주성분 2에는 각상위경, 즉 대각 위쪽의 너비와 관련된 요소가 많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주성분 1을 세로축(y축), 주성분 2를 가로축(x축)으로 설정하였을 때 그림 20의 산점도와 같이 도면의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는 대각 및 위쪽 투창의 높이가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이단투창고배가 배열되어 있고, 도면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는 대각 위쪽의 너비가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이단투창고배가 배열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 내용을 바탕으로 산점도를 살펴보면 역시 크게 4개의 군집 양상이 확인되고, 그림 20, 21에서

회전 성분 행렬 ^a		
	구성요소	
	1	2
각저경	.638	.482
기고	.776	.463
구경	.575	.657
뚜턱경	.533	.735
각상위경	.074	.905
배신고	.080	.670
대각고	.910	.261
각중경	.371	.766
상투창고	.856	-.018
하투창고	.749	.225

추출 방법: 프린시펄 구성요소 분석
회전 방법: 카이저 정규화됨
사용한 메트릭스

<그림 19> 5세기 말엽 이단투창고배 성분 행렬

와 같이 A~D의 네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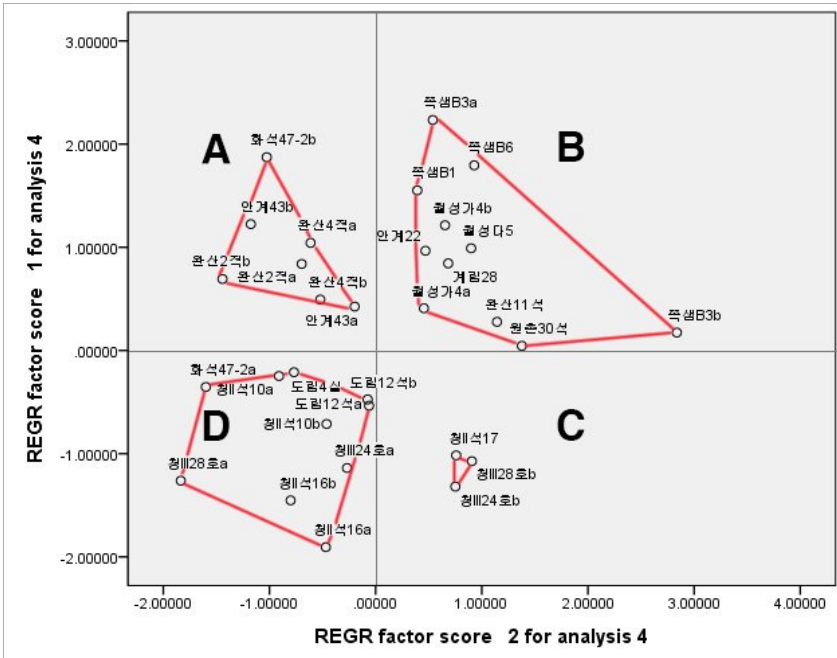
먼저 A그룹은 영천 화남리 석곽 47-2호b, 완산동 적석목곽 2호a·b, 4호a·b, 경주 안계리 43호a·b 총 7점이 분포하는데, 대각 및 위쪽 투창의 높이가 크지만, 대각 위쪽의 너비는 작은 고배에 해당한다. 총 7점 중 영천지역 출토품이 5점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영천 청정리유적과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한 경주 안계리고분군 출토품이 나머지 2점이다. 분석대상으로 삼은 5점의 완산동고분군 출토품 중 4점이 A그룹에 분포하고, 모두 적석목곽묘에서 출토된 고배라는 특징이 있다.

B그룹은 모두 11점의 이단투창고배가 분포하고 있는데, 영천 완산동 석곽 11호, 원촌리 30호 석곽, 경주 월성로 가-4호a·b, 다-5호, 쪽샘 B1호, B3호a·b, B6호, 계림로 28호, 안계리 22호이다. 영천 완산동 석곽 11호와 원촌리 석곽 30호 출토 이단투창고배 2점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경주지역 출토품이며, 대각 및 위쪽 투창의 높이가 크고, 대각 위쪽의 너비도 큰 고배라 볼 수 있다.

유사도 측면에서 볼 때 B그룹에 속한 완산동 석곽 11호와 원촌리 석곽 30호 출토품은 경주지역에서 제작되어 영천지역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C그룹은 영천 청정리Ⅱ 석곽 17호, 청정리Ⅲ 석곽 24호b, 28호b 총 3점이 분포하는데, 대각 및 위쪽 투창의 높이가 작지만 대각 위쪽의 너비는 큰 고배에 해당한다. 모두 영천 청정리 유적 출토품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D그룹은 영천 청정리Ⅱ 석곽 10호a·b, 16호a·b, 청정리Ⅲ 석곽 24호a, 28호a, 화남리 석곽 47-2호a와 도림동 석곽 12호a·b, 석실 4호 총 10점이 분포한다. 대각 및 위쪽 투창의 높이가 작고, 대각의 위쪽 너비 역시 작은 고배에 해당하며, C그룹과 마찬가지로 모두 영천 지역에서 출토된 이단투창고배이다.



<그림 20> 5세기 말엽 이단투창고배 산점도

위와 같은 군집 양상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도면 상하를 기준(주성분 1)으로 위쪽 A, B그룹에는 경주지역 출토품이 다수를 차지하고, 아래쪽 C, D그룹에는 모두 영천지역 출토품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대각 및 위쪽 투창 높이를 기준으로 경주지역과 영천지역 출토품이 분명히 구분되고, 상대적으로 영천지역産 고배의 대각 및 위쪽 투창의 높이가 경주지역의 그것에 비해 낮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5세기 말엽이 되어서도 5세기 중엽과 마찬가지로 동일 양식의 고배라 하더라도 생산지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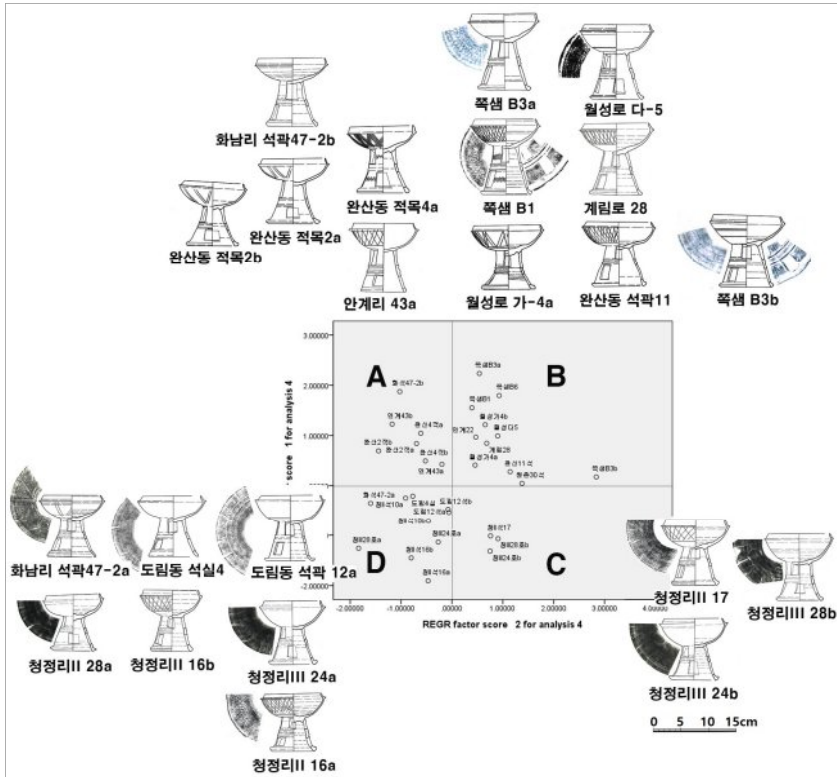
또한 도면의 상위의 A, B그룹에 영천 완산동고분군 출토 고배가 모두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차적으로는 완산동고분군 출토품이

경주지역 이단투창고배와 유사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5세기 후엽을 전후하여 영천 분지의 중심에 새롭게 부상한 완산동고분군에 경주지역에서 제작, 생산된 고배가 유입되었을 가능성²⁾이 높고, 만일 이들 고배가 영천 재지에서 제작, 생산된 것이라면 지역 공인들이 동시기 경주지역 이단투창고배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고배를 제작할 수 있는 생산체제와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영천지역 출토품 중 청정리유적 출토품이 도면의 하위에 해당하는 C, D그룹에 모두 분포하는 것도 특징적인데, 도립동고분군 출토품 역시 D그룹에만 분포하며, 청정리유적 출토품과 유사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세기 중엽과 달리 무언가 영천지역 내에서도 크게 완산동과 원촌리(A, B그룹, 영천지역 중심지), 청정리와 도립동(C, D그룹, 영천지역 외곽) 등이 구분되는 양상이 보이고, 이는 전 시기와 달리 지역 내에서 토기의 제작, 생산지가 분화(다원화)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연히 5세기 말엽이 되면서 이전 시기와 달리 지역 내에서 고분의 축조, 토기의 제작, 생산 양상 등이 변화된 것³⁾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제작, 생산지에 따른 토기의 미세한 차이는 6세기대에 접어들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사라지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2) 영천 분지의 중심부라 할 수 있는 완산동 일대에 실제 경주지역에 출자를 둔 인물의 유입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부장 유물은 물론 적석목곽묘라는 경주지역 지배층 고유의 葬法까지 가져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지방에서 새로운 고분군의 축조가 활발해지면서 부장용 토기의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지역 내에서도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의 토기 제작지(공방, 가마 등)가 등장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 21> 5세기 말엽 이단투창고배 산점도 상 토기 분포

IV. 맺음말

본고는 출토된 토기를 기준으로 4~6세기 영천지역 고분의 편년과 축조 양상 등을 알아보았고, 5세기 중엽, 말엽의 이단투창고배를 대상으로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여 기본적인 분류와 성격 등을 파악해보았다.

먼저 현재까지의 발굴 자료를 바탕으로 4세기 중엽부터 영천지역 고분의 편년이 가능하였는데, 이 시기는 청정리, 유상리유적과 화남리고분

군에서 목곽묘를 중심으로 한 고분의 축조가 확인되었고, 5세기 후엽이 되면 분지 내 금호강과 고현천 등을 중심으로 새롭게 완산동, 원촌리, 도림동고분군 등이 조영되기 시작하였다. 5세기 후엽의 완산동, 원촌리, 도림동고분군 등에서는 석곽묘와 적석목곽묘를 중심으로 한 분묘의 조영이 확인되었고, 이후 5세기 말엽이 되면 도림동고분군 등에서 횡구식 석실묘가 확인되며, 6세기 초·전엽까지 석곽묘를 중심으로 횡구식 석실묘가 조영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영천지역 내 고분의 토기부장 양상은 고배와 장경호, 단경호, 대부완, 적갈색 연질 소호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경주식 기종조합’이 5세기 중엽부터 확인되는데, 실제 4세기 중엽부터 영천지역은 경주지역과 고분 내 부장 기종의 구성, 토기의 형태 등에서 큰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양 지역 사이에 토기 제작, 기술과 관련된 인적, 물질 교류 등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영천지역과 경주지역에서 출토된 5세기 중엽의 이단투창고배를 대상으로 주성분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대각의 중간 부분 너비를 기준으로 크게 영천지역과 경주지역 출토품이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상대적으로 영천지역産 고배의 대각 너비가 넓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더불어 청정리유적과 화남리고분군 출토품이 서로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당시 영천지역 내에서 고분 부장용 토기의 제작, 생산지가 동일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토기의 제작, 생산지가 달랐더라도 유사한 토기 생산 체계를 공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하였다.

마지막으로 5세기 말엽의 이단투창고배를 분석한 결과 5세기 중엽과 마찬가지로 대각 및 위쪽 투창 높이를 기준으로 영천과 경주지역 출토품이 구분되지만, 완산동고분군 출토 이단투창고배의 경우 경주지역 출토품과 유사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당시 완산동고분군에는 적석목곽묘의 등장과 함께 경주지역에서 제작, 생산된 고배가 유입되었거나, 이들 고배가 영천 재지에서 제작, 생산된 것이라면 지역 공인들이 동시기 경주지역 이단투창고배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고배를 제

작할 수 있는 생산체계와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더불어 5세기 말엽에는 5세기 중엽과 달리 지역 내에서 토기의 제작, 생산지가 분화(다원화)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양상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지역 내에서 5세기 후엽 이후 고분의 축조가 활발해지며 토기의 제작, 생산 양상 역시 변화된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이 논문은 2025년 02월 16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5년 02월 24일부터 03월 1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5년 03월 13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慶州 쪽샘地區 發掘調査 報告書 I』, 2011.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慶州 쪽샘地區 新羅古墳Ⅱ』, 2012.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慶州 쪽샘地區 新羅古墳Ⅲ』, 2013.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慶州 쪽샘地區 新羅古墳遺蹟Ⅶ』, 2016.
- 國立慶州博物館慶北大學校博物館慶州市, 『慶州市月城路古墳群』, 1990.
- 國立慶州博物館, 『慶州 鷄林路 新羅墓 1』, 2012.
- 南翼熙, 『新羅土器 研究』, 慶北大學校 文學博士學位論文, 2018.
- 남익희, 「신라 적석목곽묘 출토 토기의 편년과 분포」, 『마립간과 적석목곽분』, 국립경주박물관, 2021.
-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安溪里古墳群』, 1981.
-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皇南大塚(北墳)』, 1985.
-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皇南大塚(南墳)』, 1993.
- 삼한문화재연구원, 2020, 『영천 반정리 부흥·영천 고지리 팔암·경주 도계리 지석묘군Ⅱ 외 16개소 유적 Ⅱ권』.
- 우리문화재연구원, 『永川 完山洞 산28-5番地 遺蹟』, 2022.
- (재)경상문화재연구원, 『영천 원촌리 고분군』, 2016.
-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영천 청정리유적Ⅲ』, 2018.
- (재)계림문화재연구원, 『영천 금노동 82-2번지 일원 유적』, 2015.
- (財)聖林文化財研究院, 『永川 華南里 新羅墓群 I -木槨墓-』, 2013.
- (財)聖林文化財研究院, 『永川 華南里 新羅墓群Ⅲ-石槨墓 本文1, 2-』, 2015.
- (財)嶺南文化財研究院, 『永川 淸亭里遺蹟』, 2001.
- (財)嶺南文化財研究院, 『永川 淸亭里遺蹟Ⅱ』, 2011.
- (재)한빛문화재연구원, 『영천 도림동 고분군』, 2020.

Abstract

A Study on the chronology and Characteristics of the mounted cup of Ancient Tombs at Yeong-cheon area in the Three Kingdoms Period

Nam, Ik-hee

Based on the excavated pottery, this study researched on the chronology and construction pattern of ancient tombs in Yeong-cheon in the 4th and 6th centuries. And 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mounted cup of the middle and late 5th century to understand the basic classification and characteristics.

First, in the Yeong-cheon area, the wooden chamber tomb was confirmed from the mid-4th century, and in the late 5th century, the stone lined tomb and wooden chamber tomb with stone mound was confirmed. Later, at the end of the 5th century, horizontal entrance style stone chamber tomb appeared,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horizontal entrance style stone chamber tomb with the stone lined tomb until the early 6th century.

Next, as a result of conducting 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on the mid-5th century the mounted cup excavated in the Yeong-cheon and Gyeong-ju area, it was found that the excavations in Yeong-cheon and Gyeong-ju area were largely divided based on the width of the middle part of the leg. Through this, it could be judged that it was highly likely that the production site of pottery for ancient tombs was the same within the Yeong-cheon area at the time.

However,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the mounted cup ancient tombs at the end of the 5th century, the excavations in Yeong-cheon and

Gyeong-ju are classified based on the width of the leg, but the the mounted cup ancient tombs excavated in Wansan-dong Ancient Tombs are found to be quite similar to those found in Gyeong-ju area.

This could be understood as having a production system and technology that a local pottery producer in Yeong-cheon area to produce pottery almost the same level as those in Gyeong-ju area at the same time, with the appearance of the stone lined tomb and wooden chamber in Wansan-dong Ancient Tombs.

keywords :

Three Kingdoms Period, Ancient Tombs in Yeong-cheon area, Pottery, Chronology, Principal component analysis